

담배 피워서 는 안된다.

나의 가족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 부터 담배냄새를 싫어한다. 나의 애인도 나를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참을수 없다.

요즘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을 종종 본다.

TV를 보면 고교생이나 중학생 등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내가 신문을 봤을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여성에게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여성이 임신했을 때 즉,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아기에게도 좋지 않다고 했다.

남성의 경우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 위암에 걸린다고 한다. 근처에 있는 사람 즉, 담배냄새 때문에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 자신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도 위암 등의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 담배 광고하는 것도 걱정거리이다.

중학생이나 고교생 등은 담배광고를 보고 호기심에서 담배를 사기도 하고 또,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97년경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생겨났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즉, 18세 미만 학생이 술이라던지 담배 등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또, 가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등을 팔고 있다.

또 담배 자동 판매기로 담배를 간단하게 살수 있다.

요즘 담배를 피울수 없는 공공장소가 증가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도 휴게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다.

나는 여성이기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 담배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몸을 위해 담배를 사지도 말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으면 한다.